

민주 '이재명표 인적쇄신' 시동...사무총장 교체가 관건

친이 정책위·기획위원 등 대상 지명직 최고 송갑석 등 유력 거론 비명 '퇴진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추, 지지층 분열 행위 자제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적쇄신에 나서면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인적쇄신 카드가 당의 결집이라는 성과를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목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 모임인 '인회' 출신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도 개편 대상에 올라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참석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대변인 등 원내·외의 대변인 일부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친명(친이재명)계 색깔이 짙은 인물들을 배치한다면 화합·탕평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 임 최고위원의 자리에 비명(비이재명)계인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의 서삼석 의원과 광주의 이병훈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직개편에 대한) 결론은 이르지만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임선숙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 후에도 (바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섭외해 교체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한 사람 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체 대상이 누구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인적쇄신이 당내 공감을 얻는다면 강

성 비명계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그를 향한 퇴진론은 일단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인적쇄신의 수위가 비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가 요구하는 인적쇄신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공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인적쇄신의 진정성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 온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선이 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며 "이 대표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말을 얼마나 들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인적쇄신은 배려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 대표가 보다 과감한 결단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당의 결집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당직 개편에서 조 사무총장이 유임되면 인적쇄신의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면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추가로 체포 동의 요구가 국회에 남아오는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 등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난해 왔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장애는 분열과 갈등"이라며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갈등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자 이재명이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굴종외교 바로 잡는 것이 안중근 의사 기리는 길"

이재명, 안 의사 순국 113주기 글 "동양평화의 꿈 절실히 필요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열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빙기 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파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청년 정치인 "국회의원 세비·정수 제3기구 통해 정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26일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가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 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은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로서는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는 뜻일 것"이라며 "평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

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은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양곡법 거부 여부,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판단"

거부권 관측 속 공식 입장엔 신중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

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 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부에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

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불리 '농심(農心)'을 자극하지 않고 먼저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거부권 공식화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의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